

병영체험 소감문

201910304

국가안보학과

이 용 희

전쟁 기념관 답사기

삼각지역에 있는 전쟁 기념관으로 답사를 갔다. 6호선 삼각지역에서 내려 사전에 지도를 보고 기억해본 길을 따라서 기념관을 찾아갔다. 기념관은 삼각지역에서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었고, 맞은편에는 국방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광장 앞에는 사람들이 마치 항쟁하거나 안고 있는 듯 한 조형물들이 어렴풋이 보였다. 이것은 형제의 상이다 6.25전쟁 때 실존했던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모티프로 만들었다고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셨다. 전쟁은 피를 나눈 두 형제에게 서로가 총구를 겨누도록 만들었다. 한민족이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며 싸웠다는 점에서 정말 잔인하고 비극적인 전쟁인 것 같다. 한민족에게 총을 쏘는 군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정말이지 몹쓸 짓인 것 같다.

정문 옆인 셋길 같은 통로를 지나자 앞에 작지 않은 호수가 보였다. 호수에는 떼지어 다니는 물고기와 그것을 구경하려는 가족들과 연인들이 많이 보였다. 주변의 나무나 연못을 봤을 때 이곳의 관리 상태가 어땠는지 쉽게 짐작하게 했다. 좋은 경치 뒤로는 전쟁 기념관일 것 같은 건물이 보였다. 예상 외로 큰 건물에 흠칫 놀랐다. 연못에 따라 난 길을 따라가다 보니 전쟁에서 사용 됐을 법한 탱크나 포, 비행기 등이 조형물처럼 전시되어 있었다.

전시되어 있는 조형물과 무기들은 대부분 6.25 전쟁을 중심으로 전시되어 있었다. 아마 이 전쟁 기념관을 세운 이유도 6.25 전쟁과 가장 큰 관련이 있지 않나 싶다. 조형물을 있는 쪽을 가보니 수많은 비행기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이곳에는 정말로 커다란 비행기들이 전시되어있었다.

그리고 이번 견학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탈북자가 말해주는 북한의 실상이야기였다. 실제로 북한에 살던 사람이 강연을 해주니 더욱 생동감 있었다. 항상 내가 궁금했던 것은 북한은 왜 우리나라처럼 일반사람들이 같이 들고 일어나서 김정은과 그 체제에 대항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그 이유가 바로 시민단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활동을 도모할 상황조차 없다는 것을 듣고 궁금증이 해결되었다. 나는 무조건적으로 통일을 바라는 입장은 아니다. 서로 다른 국가로 인정하고, 왕래도 자유로운 관계도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을 포함한 북한 사람들이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북한이 바뀌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